

전북도와 사회적 농업 육성 박차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식품국장, 임실 선거웰빙푸드 현장방문 군과 협력방안 논의

임실군이 전북도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이뤄 '임실군표 사회적 농업'을 전국적인 모델로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수산물식품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을 실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운암면 선거마을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대표 박 미)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 국장은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의 박 대표의 설명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도와 군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농업은 문제인 정부 100대 국

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장애인, 고령자, 복지아동 등의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해 맞춤형 교육, 돌봄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야생화 꽃차, 보존화(프리저브드 플라워)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립 및 사회적응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가칭 돌봄마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임실

군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선거웰빙푸드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이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6차산업화로 진화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사람중심의 농업으로 거듭나는 모델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농업을 적극 지원하여 약자가 살기 좋은 임실군을 만들어 가겠다"며 "전라북도와 적극 협력하여 농업과 연계된 사업을 유치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인구소멸 위기 소상공인 보호정책으로 극복'

순창군이 미래 인구소멸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2017년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순창군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이끌어 갈 경제인구, 청년층과 중년층이 급감하고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순창군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제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 이차보전, 특례보증 등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내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는 물론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삭감 이유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상품권 사용을 기피하고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것.

지난달 열린 주민공청회 결과 주민의 관심도는 높았으며, 상품권 발행에

대한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 가량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가맹점 등록의사는 67%, 가맹점 중 사용잔액 100% 환불 답변도 73%를 보였다.

정부에서도 116개 자치단체 2조원의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한 정비지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순창군도 올 9월 1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민 임실군수,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진

심민 임실군수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맞아 4일 관내 시설물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진에 발 벗고 나섰다.

심 군수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군청 건물과, 안전관리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강진면 갈담리 강서마을 소재 강동교 및 교량 안전관리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군은 19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안전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위험시설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심민 임실군수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진에 나섰다.

호하고 안전한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약 305개소를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행 중에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미세먼지 없앨 청정필터 구축

서부산림청, 군산 통매산서 나무심기·화분 만들기 체험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지난 5일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의 일환으로 군산 통매산 유아숲체험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옥 청장을 비롯해 정읍국유림관리소장, 익산 산림조합장, 지역 유아·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팝·자작나무와 유실수 등 나무심기체험과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체험도 가졌다.

특히 유아숲체험원에서 활동하

는 유아들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빠른 큰 나무를 심어 도심권 미세먼지를 줄여 숲 체험 활동을 돕는 한편, 다양한 수종과 야생화정원도 조성해 작은 수목원처럼 숲속 휴식공간으로도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옥 서부청장은 "숲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청정 필터라며, 나무심기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숲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청운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공익장 김현규·효열장 정인옥씨

임실군 청운면은 오는 13일에 열리는 '제41회 청운면민의 날'을 맞아 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면은 지난 4일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익장 김현규(71)씨, 효열장 정인옥(72)씨를 각각 선정했다.

김현규씨는 현재 임실읍남파병장병총무를 맡으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월남파병장병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해결에 앞장섰다.

2017년과 2018년 경로당에 백미 20kg 100포를 기증하는 등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효열장에 선정된 정인옥씨는 차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40여년 동안 지극정성 모시고 시는분이다.

경로효친 상상을 품소 실천해 먼민들에게 효행정신을 일깨워 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는 농촌지도자회장직을 맡으면서 농업인의 소리를 귀담아들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선진 교통문화 확립 나선다

남원시가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해 시민들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지역을 시행하는 등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의 지장을 주어 경계석을

적적으로 표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보조표지판을 설치해 교통문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단속 공무원 등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남원시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면 대 당 500만원의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2년 이상 등록된 통학차량으로 지정했다.

2010년 말 이전에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또는 공동소유자로, 신청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이다.

지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총 7대를 지원하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청포함)나 지방세 체납 차량, 국·공립 시설 직영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와 사업안내는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환경과(063-620-62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왕길성 환경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함께 생활환경개선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멧돼지 포획률

대여로 농가 피해 줄이기로

순창군이 지난해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일조한 데 이어 멧돼지 포획률 대역사업으로 농가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2월 28일 순창군 전역에 수렵장을 운영해 멧돼지 462마리와 고라니 1,114마리 등 총 27,850마리를 포획하는 등 농산물 피해 예방에 일조했다.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멧돼지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멧돼지 포획률 대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은 멧돼지들이 먹거리 찾아 산 밑으로 내려와 발자국의 새순을 먹는 등 피해가 커 멧돼지 포획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포획률 대역은 면사무소를 통해 각 마을 별로 운영될 계획이며, 2~3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시 필요한 안전 교육과 함께 먹이 준비 및 유인방법 등 사전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